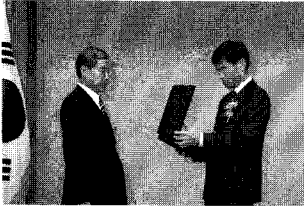


## 협회소식

환경보전협회 조현구 사무총장  
공로상 수여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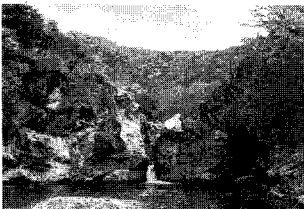
환경보전협회 조현구(趙滋九) 사무총장이 지난 10월 27일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회장 이민효)로부터 학회

창설 이후로 현재까지 학회 및 지하수·토양 환경 분야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하여 『공로상』을 수여 받았다. 조현구 사무총장은 1966년 충청남도에서 공직을 시작하여 1980년 환경청 개청과 함께 토양관리과, 수질제도과, 평가분석과, 한강환경감시대장, 금강유역환경청 유역국장, 한강유역환경청 유역관리국장 등을 역임했으며 작년 3월 우리협회 사무총장으로 취임하여 협회의 단합과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수도권대기환경청·환경보전협회  
“하늘사랑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 개최

어린이들에게 맑은 공기 보전의 소중함과 필요성을 일깨워 주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 수도권대기환경청(청장 전태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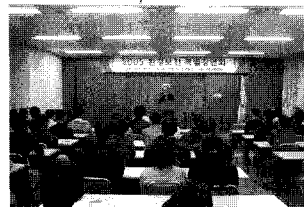
이 주최하고 환경보전협회(회장 박용성)가 주관한 “하늘사랑 어린이 그림그리기대회”가 지난 10월 23일 하남시 미사리 조정경기장에서 약 1,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소중한 우리의 자산, 푸른 하늘, 맑은공기’라는 주제로 서울, 인천, 경기소재 유치원, 초등학교가 참여하였으며, 다채로운 이벤트 행사도 진행되었다.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통해 입상작이 선정되며, 향후 입상작품은 우수작품 모음집 및 액자 등으로 제작하여 홍보자료로 활용된다.

한강유역환경청·환경보전협회  
북한강 유역 생태·문화 탐방 실시

북한강유역의 발원지부터 하류까지 자연과 문화유적에 대한 생태탐방을 통하여 한강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환경보전운동으로의 실천을 도모하기 위해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이인수)이 주최하고 환경보전협회가 주관한「북한강 유역 생

태·문화 탐방」이 지난 11월 2일부터 4일까지 열렸다. 에코-아카데미 기수교생, 환경정책협의회, 수계위 자문위원, 환경부 및 한강유역환경청 관계자 등 40명이 참석하였으며, 경기도 가평군, 강원도 춘천시, 양구군, 화천군 일대에서 생태탐방이 실시되었다. 동 행사는 한강유역환경청 주최 및 환경보전협회의 주관으로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개최 되어 왔으며, 매년 그러했듯이 이번 탐방 기간 중에도 참가자들의 열정적이고 진지한 모습을 엿 볼 수 있었다. 이번 북한강 생태탐방은 한강수계내 민·관이 한강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한 아이디어 교환과 공조체계를 구축하는 화합의 장이 되었다.

## 2005년 직원연수 및 워크샵 행사 열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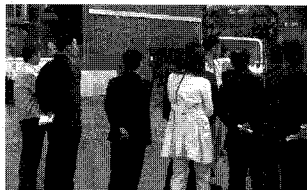


지난 10월 15일부터 16일까지 환경보전협회 직원연수 및 워크샵 행사가 1박2일의 일정으로 한화리조트 대천(충남

보령시 소재)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고재영 환경부 환경정책실장이 환경분야에 대한 특별강연을 하였으며, 본회를 비롯한 각 시·도지회가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샵 행사는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며, 협회 발전의 계기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다.

## 협회소식

### 2005 회원사 산업시찰 실시



환경보전협회 서울본회에서는 지난 10월 27일 회원사의 현장관리 및 다양하고 내실있는

정보제공을 위하여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원사 산업시찰을 실시하였다. 부천시 하수정화사업소, 부천시 폐기물 종합처리장등의 시찰을 통하여 실제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회원사 환경관리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었다.

### 환경보전협회 서울본회 생물학적 폐·하수처리 실무교육 실시



환경보전협회 서울본회에서는 지난 10월 17일~19일까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환경관리인 및 관리자를 대상으로 수질오염

진 신기술을 소개하여 현장실무에 도움을 주고자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생물학적 폐·하수처리 실무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실무교육은 「하폐수처리장 운전시 활성슬러지 이상현상의 종류와 진단», 「활성슬러지 진단방법», 「질소제거 처리장의 실제와 운전방법」등에 대하여 환경부 산업폐수과 담당 사무관과 이호환경컨설팅 이문호 대표이사가 교육을 하였다. 국내·외 우수사례·현장 적용사례 연구 및 토의 등을 통해 실제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환경관리인들에게 보탬이 되는 교육의 장이 되었다.

### 환경보전협회 부산광역시지회,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한부산지역 환경관리 및 환경행정 지도·점검 추진방향" 세미나 개최



환경보전협회부산광역시지회(지회장 정병호)에서는 10월 19일 부산일보 10층 대강당에서 부산광역시 관내에 있는 환

경오염배출시설업체 대표자, 환경기술인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부산광역시·부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와 공동주최로 "성공적인 APEC 개최를 위한 부산지역 환경관리 및 환경행정 지도·점검 추진방향"에 대한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는 얼마 남지 않은 APEC을 앞두고 부산광역시 관내 환경오염배출업체에서 근무하는 대표자 및 환경기술인들에게 "환경관리 및 환경행정 지도·점검" 내용을 주지시킴으로써 "깨끗한 환경 깨끗한 부산"을 APEC에 참석하는 국가 정상들에게 인식시키고, 성공적인 국제행사를 마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 환경보전협회 대구·경북지회 개정 환경법규 해설교육 실시



환경보전협회 대구·경북지회(지회장 이희태)에서는 지난 10월 5일 대구·경북지역 배출업체를 대상으로 경산 시민회관 대

을 개최 하였다.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관계관을 강사로 초빙하여 금번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법규해설과 신규 법규인 악취방지법, 다중이용시설등의 실내공기질 관리법 등에 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전달하였다. 이번 해설교육에는 관내 회원업체와 배출업체 관련 공무원을 포함하여 600명여명이 참석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 각종 행정규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7개법규 및 주요 훈령, 예규 내용으로 제작된 법규집과 폐기물적법처리 인·허가 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을 배포하였다.

강당에서 2005년도 환경관련 개정법규 해설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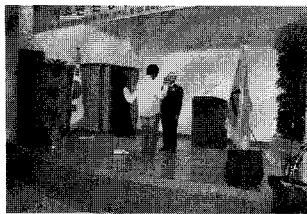
## 협회소식

### 환경보전협회 광주·전남지회 환경행정실무 및 배출업소 지도점검방향 설명회 실시

환경보전협회 광주·전남지회(지회장 안홍순)는 지난 10월 18일 광주상공회의소 7층 회의실에서 광주·전남지역 회원사 및 배출업체 환경업무 담당자(부서장) 3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환경행정실무 및 배출업소 지도점검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

는 오전에 광주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광주시청 박남규 환경관리계장이, 오후에는 전남지역 사업장을 대상으로 전남도청 김정수 환경관리계장이 금년에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관리요령과 수질환경보전법령 해설, 하반기 지도점검 내용 및 개정된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등에 관한 통합 지도점검규정에 대하여 설명을 하였으며, 참석자들과의 질의 응답을 통하여 전반적인 의견 교환이 있었다.

### 환경보전협회 경기도지회 배출시설 지도·점검 특별교육 실시, 청소년 환경봉사단 발족



환경보전협회 경기도지회(지회장 우봉제)에서는 회원사 및 경기도내 기업체의 환경관련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에 의한 대기오염물질 배출(방지)시설 관리요령과 하반기 지도·점검 주요 내용 및 개정된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등에관한통합지도·점검 규정에 대한 해설 교육을 환경 담당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국서부공단관리소(반월시화공단지역, 10월 13일) 및 동남 보건대학교(공단외지역, 10월 18일)에서 실시하였다.

이번 특별교육에는 약 25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환경부 대기관리과 김광석 대기담당관과 경기도청 환경보전과 김교선 사무관의 내실있는 강의로 상반기 교육

에 이어 약 25%의 참석률이 증가하는 등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날 참석한 환경담당 임·직원들에게는 교육교재 및 『대기·수질환경보전법』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경기도지회에서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환경사랑과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고, 환경오염의 위해성과 환경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환경지킴이를 육성하고자 지난 9월 24일 동남보건대학교(수원시 소재) 해운관 대강당에서 『청소년 환경봉사단』발대식을 가졌다. 이날 발대식에는 경기도 교육청에 파견된 장학관과 전영호 장학사 및 경기도 자원봉사센터 서재범 사무국장과 운영위원, 지도교사, 학부모, 학생(봉사단원)등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봉사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다짐하였다.

청소년 환경봉사단의 첫 활동으로는 10월 23일 수원시 만석공원에서 열린 『2005 경기도 에너지체험마당』에 참여하여 태양열조리기 체험 진행보조 및 만석공원 정화활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환경보전 활동뿐만이 아닌 지역사회의 각종 행사에도 참여하여 환경보전을 위한 홍보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국내소식

### 내년부터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제 도입

환경부는 소비자에게 보다 환경친화적인 자동차 연료제품 선택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동차 연료품질등급제 실시를 위한 평가기준을 고시하여 내년부터 시행한다. 품질등급제는 수도권 지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연료에 함유된 대기오염물질의 함유량 및 환경상 위해의 정도 등에 대한 정보공개제도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에 도입됨에 따른 것으로, 종전('02~'04)에 시범적으로 시행된바 있는 '자동차

연료 품질 공개제'(연료 분석 수치만 공개)를 한 단계 발전시킨 제도이다. 수도권지역에 공급되는 휘발유 및 경유를 대상으로 반기별로 대기환경보전법상 환경품질 기준항목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게 된다. 앞으로 연료 품질등급제가 정착되면 소비자는 친환경 연료 구매를 확대하고, 정유사에게는 자발적인 연료 환경품질 개선 노력을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어 대기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국 내 소 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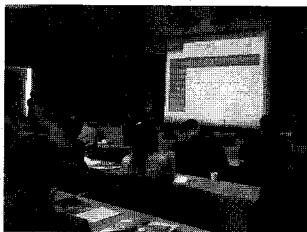
### 경제발전과 환경보전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3대 환경서비스업종 집중 육성

환경부는 미래 환경수요에 부응하고, 성장가능성이 높은 환경건설링업, 토양정화업, 재활용업을 환경서비스업 유망업종으로 선정하여 집중 육성한다.

이번에 마련한 「서비스 경쟁력 강화방안」은 기후변화협약과 선진국의 환경보호를 이유로 한 통상압력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생존전략이며, 경제발전과 환경보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기 위한 WIN-WIN 전략이다. 첫째, '06년 상반기까지 환경건설링업 등록제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환경건설링업의 수요기반 확충 및 활성화를 위하여 환경개선자금 융자지원 및 환경경영기법을 확대 보급 시키며, 환경전문인력에 대한 교육·정보교류·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할 환경건설링 협회 창립을 지원하

게 된다. 둘째, “토양정화업”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의 범위에 새로 포함시켜 다양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하고, 토양정화업 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마련하며, 선진국의 50%~70% 수준인 토양오염 정화기술개발을 위해 국제 공동연구 등을 적극 추진하며 셋째, 좁은 국토면적과 지속되는 고유가 등 국내여건을 감안할 때 재활용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재활용률 증진이 절실한 시점임을 감안하고, 자원순환형 사회 구축을 위하여 전주시예 '07년까지 「자원순환 특화단지」를 조성하며, 재활용 원료 사용 의무화 대상을 건설공사(순환골재) 까지 확대하는 한편, 산업계의 「녹색구매 자발적 협약」대상을 확대 녹색구매 운동을 전국민 운동으로 확산하게 된다. 이번에 마련된 “환경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추진을 통해, 앞으로 환경서비스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으로 국내 환경개선에 기여함은 물론, 환경산업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제6회 환경신기술 발표회 열려... 환경관리공단, '환경선진화' 신기술 개발로 이룬다.



지난 10월 27일부터 28일까지 환경관리공단이 주최하고 환경부와 제주도가 후원한 '제6회 환경신기술발표회'가 제주도 한화리조트에서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번 신기술 발표회에서는 BTL하수관거사업, 하수슬러지처리 기술, 폐기물재활용에 대한 기술들이 많이 소개되었으며 총 62건의 신기술이 소개되었다. 환경관리공단 담당자는 “현재 수질분야의 신기술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BTL하수관거사업, 하수슬러지처리 기술, 폐기물재활용 등도 새롭게 각광받는 환경기술분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 분야의 기술들이 지난해에 비해 신기술 지정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기술의 현장적용을 확대

하기 위해 현재 각종 인센티브 제도가 있지만 인센티브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신기술의 우수성을 홍보매체를 통해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실수요자인 지자체 공무원들에게 신기술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자 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지방자치단체·기업 등 주요 기술수요처에는 신기술 정보를, 기술개발 및 보유자에게는 기술동향 파악 및 정보교류의 기회를 제공하는 자리가 되었다.

참고로 정부에서는 우수한 신기술의 보급촉진과 환경산업의 선진화를도모하기 위하여 '97. 12월 환경기술평가제도를 도입한 이래 '05. 9월 현재 143건을 환경신기술로 지정하였으며, '04년까지 환경신기술을 1,068개 현장(공사금액 약 10,419억원)에 적용함으로써 동 제도가 기술개발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환영받는 제도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 보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koetv.or.kr](http://www.koetv.or.kr))를 참고하시거나 환경관리공단 기술평가팀(☎032-560-21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국내소식

### 수도권 푸른 하늘의 차세대 파수꾼, 「푸른 하늘 지킴이」활동

환경부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수도권내 초·중학교에 수도권의 푸른 하늘을 만들고 지켜나갈 차세대 파수꾼으로서 「푸른 하늘 지킴이」를 지난 6월에 구성하고 7월부터 활동에 들어갔다. 「푸른 하늘 지킴이」는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에 있는 초·중학교 중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를 대상으로 각 기초지자체별로 1개교씩 총 58개교(서울 25, 인천 9, 경기 24)를 선정하여 1년 동안 학생들이 직접 자기 고장의 대기오염도(이산화질소)를 매일 측정하고, 대기오염을 일으키는 오염원은 무엇인지를 조사하게 된다. 조사방

법은 간이측정방식인 패시브샘플러(Passive Sampler)를 이용하여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으로 구분하여 4개 지점을 선정, 측정한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는 매일 측정기기 및 운영경비 등을 제공하고, 「푸른하늘 지킴이」홈페이지를 개설하여 학생들이 정보 및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1년후 활동실적이 우수한 학교를 선정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앞으로 매년 참여 학교를 교체하여 운영함으로써 수도권 대기관리권역내 모든 초·중학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며, 내년도에는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 수질환경 새로운 기준 만들어진다. 하천·호소등급, 5등급 → 7등급 유해물질에서 생태계 관리 중심으로 전환

1978년 수질환경보전법이 제정될 당시 정해져 27년간 거의 그대로 이어져왔던 수질환경기준이 이번 기회에 바뀌게 된다. 환경부에서는 새로운 수질환경기준을 과학적이고 알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선진국에서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평가방법도 도입하기로 했다.

2006년부터 시행되는 '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기본계획' 수립 시기에 맞춰 연구해온 수질환경기준 선진화 방안에 대해 연구책임기관인 KEI(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주관으로 지난 10월 20일 공청회를 개최해 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올해 안으로 새로운 수질환경기준을 확정한다. 현재 BOD를 중심으로 5등급으로 나뉜 수질환경기준을 7

등급으로 세분화하고 표현방법도 수치형에서 서술형으로 전환된다. 구체적으로 현행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중 납과 카드뮴의 기준치를 2배 강화하고, 위해성 평가치 대비 현황조사치가 높은 5개 항목을 우선 신규 추가항목으로 선정하는 등 단계별 확대를 통해 건강보호기준이 현행 9개 항목에서 2015년까지 30여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또한 수질상태에 따라 서식하는 어류와 저서생물, 지표종 기준이 추가되고, 분변오염 여부를 판단하는데 신뢰성이 더욱 큰 분원성 대장균군도 기준에 추가돼 종합적이고 민감한 물환경 평가가 가능하게 된다. 환경부는 새로운 수질환경기준이 확정되면 그에 맞춰 현재 수립중인 향후 10년간의 물환경정책을 담은 '4대강 대권역 수질보전기본계획'의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며, 새로운 수질기준은 2006년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빠르면 2007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 개발사업에 대한 사전입지 상담제도 운영

환경부는 사업착공전 '사전입지상담제도'의 운영에 대한 지침을 확정하고, 사전입지상담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사전입지상담'이란 사업자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단계에서 입지의 환경적 적정성 검토를 신청하는 경우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이를 검토하여 주는 행정서비스이다.

'사전입지상담제도'는 올해 초 원주지방환경청이 처음 시도한 제도로써, 개발사업자가 구체적 계획을 수립하기 전 환경성에 대한 약식예비검토를 통해, 부

지 매입 등 사업절차를 이행한 후에 환경법령 저촉으로 부동의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시간적 손실 가능성을 미리 차단함으로써 그 역할을 독특히 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번에 새로이 제정·시행되는 운영지침은 현재 환경청별로 추진 중인 사전입지상담제도를 보다 정형화한 것으로서, 환경부는 이번 지침에 의해 사전입지상담제도가 본격 운영되게 되면, 최소한 연 360억 원의 비용절감효과와 연 200여건에 달하는 개발사업의 환경성검토를 위한 구비서류 보완이나 반려건수가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 국내소식

### 향후 10년간 「국가환경종합계획」 수립·확정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가환경관리 기본틀 마련

환경부는 향후 10년간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비전과 전략을 제시하는 「국가환경종합계획(06~15)」을 수립·발표하였다. 「국가환경종합계획」은 관계부처의 환경관련 계획을 선도하고, 지방자치단체 환경보전계획의 수립방향을 제시하는 국가차원의 환경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이다. 기존의 매체(대기, 수질 등) 중심에서 수용체(인간, 자연생태 등)·카테고리(환경-경제, 지구환경 등) 중심으로 환경정책 접근 방식을 전환시킴으로써 패러다임의 변화를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계획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환경관리 7대분야 핵심전략, 국토환경관리 기본구상, 추진기반 강화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핵심전략의 주요 내용중에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추진되어, 특히 지역주민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환경보전 기본구상으로 3대 국토생태축과 5대 환경관리대권역을 설정함으로써 환경가치에 따라 체계적으로 구분된 국토환경 보전대책이 추진될 예정이다. 향후 환경부는 「국가환경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 수립예정인 분야별 환경계획과 지자체 환경보전계획과의 연계강화를 통해 계획의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 국제환경동향

## 중국의 청정 에너지를 지원하는 유럽연합

교토의정서에 관한 차기 회의가 11월 말에 몬트리올에서 개최되기로 결정됨에 따라, 중국과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새로운 협력을 체결했다고 유럽연합은 밝혔다. 이것은 6개 국으로 구성된 청정 개발 및 기후에 대한 아시아-태평양 기구를 미국이 지난 7월 발표했을 때보다 더 많은 환영을 받고 있다. 주로 기술 공유를 통한 아시아-태평양 조약은 목표 의식 부족과 구식의 쌍방 협의사항을 재구성한 것이라는 이유로 비난을 받아 왔다.

미국 다음으로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중국은 11월 교토의정서를 위한 11차 회의 동안에 협의를 위한 중심이 될 것이다. 토의를 위한 안전 중 하나는 어떻게 개발도상국들이 교토의정서가 만료되는 시점인 2012년 이후 온실가스를 저감하도록 하느냐는 것이다. 2012년까지 중국을 포함한 어떤 개발도상국들에게도 온실가스 감축이 의무사항은 아니다.

9월 초에 발표된 유럽연합-중국 협의회는 2020년까지 이루어질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매년 유럽연합-중국 정상회담에서 검토가 진행될 것이다. 그

러나 자금지원에 대한 세부사항은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 협의체의 첫 번째 목표는 석탄화력 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하여 지하에 저장하는 무배출 석탄 기술을 개발하고 실현하는 것이다. 유럽연합은 중국에 전문 기술을 제공할 것이며 탄소 저배출 화력발전소를 위한 투자를 약속했다고 유럽연합 대변인은 밝혔다.

두 번째 목표는 주요 에너지 기술의 비용을 상당히 감소시키는 것이다. 다른 목표는 에너지 효율을 증가시키고, 에너지 보존, 재생에너지, 태양 회수 및 활용, 수소 및 연료 연지, 전력 생산 및 전송에 대한 것들이다.

7월에 발표된 아시아-태평양 조약은 거대 온실가스 배출국인 중국과 미국을 포함한 첫 번째 조약인 셈이다. 여섯 개 서명국은 교토의정서를 교체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는 대신에, 교토협의를 실현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발표했다.

아시아-태평양 협의는 청정 에너지 기술을 6개 국에 전파하는 것으로,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유일한 선진국인 미국과 호주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인도, 한국이 포함되어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제공〉